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87>

JCCT 2022-9-10

다문화장병 정책 연구동향 분석 -2010년~2022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Research Trends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10 to 2022-

임소정*, 이정훈**

Sojeong Im*, Jeong-Hoon Lee**

요약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된 다문화장병 정책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대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의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연구 분야 또한 최초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부터 정책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대상면에서는 간부에서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이 다문화 장병 대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인점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주요어 : 다문화, 다문화 장병, 다문화 장병 정책, 연구경향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with a focus on the academic papers released from 2010 to 2022 on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by year, field, and research subjec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at allowed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join the army, but not actively so. Research fields also diversified from the crea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eparation directions to policy proposals ahead of the first multicultural soldier's enlistment, but the need to expand the field of research has been identified. Lastly, research subjects ranged from executives to warriors, but most of them centered around inmates rather than multicultural soldiers.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set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soldiers that are still in progress.

Key words :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ldiers,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Research Trends

1. 서론

코로나 19의 여파로 주춤했지만 연도별 전체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연도별

결혼 이민자는 코로나 19와 무관하게 증가추세이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입영장정이 되어 군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오늘날 과연 그에 대한

*정희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강사 (제1저자)

**정희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15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31일

Received: July 15, 2022 / Revised: August 10, 2022

Accepted: August 31, 2022

**Corresponding Author: 106rotcian@hanmail.net

Dept. of Psychology,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Korea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게 되었다.

국방부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장병’의 범주는 외국인 귀화자, 북한 이탈주민 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 장병, 결혼 이민자 등이다 [1]. 1991년생까지는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되었으나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한국국적이면 모두 병역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입대가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2006년 2만 5천명에서 2015년에는 8배가 증가한 20만 8천명이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출신 입대장병도 2016년~2021년에는 14,736명으로 연평균 2,456명에서 2022년~2027년에는 32,557명으로 연평균 4,651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 장병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다문화장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학술 연구지에 발표된 논문 41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I.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장병 정책의 연구동향 파악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의 관련된 학술논문 DBpia, KISS, 스콜라, e-article, RISS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도별, 연구분야별, 연구대상별로 분석하였다.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 학술논문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다문화 장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술논문을 우선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다문화 장병’과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다문화 간부’, ‘다문화 장교’, ‘다문화 군대’를 키워드로 가지는 논문은 모두 포함하였다. 둘째, 육군, 해군, 공군 모두를 포함하였다. 셋째, 군 조직의 간부 및 용사부터 일반인 집단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III. 연구결과

표 1. 다문화 장병 관련 연구의 연도별 현황
Table 1. Annual Status of Multicultural Soldiers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논문 수	3	0	1	4	2	1	3
비율(%)	(7%)	(0%)	(2%)	(10%)	(5%)	(2%)	(7%)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논문 수	7	4	3	8	3	1	41
비율(%)	(17%)	(10%)	(7%)	(20%)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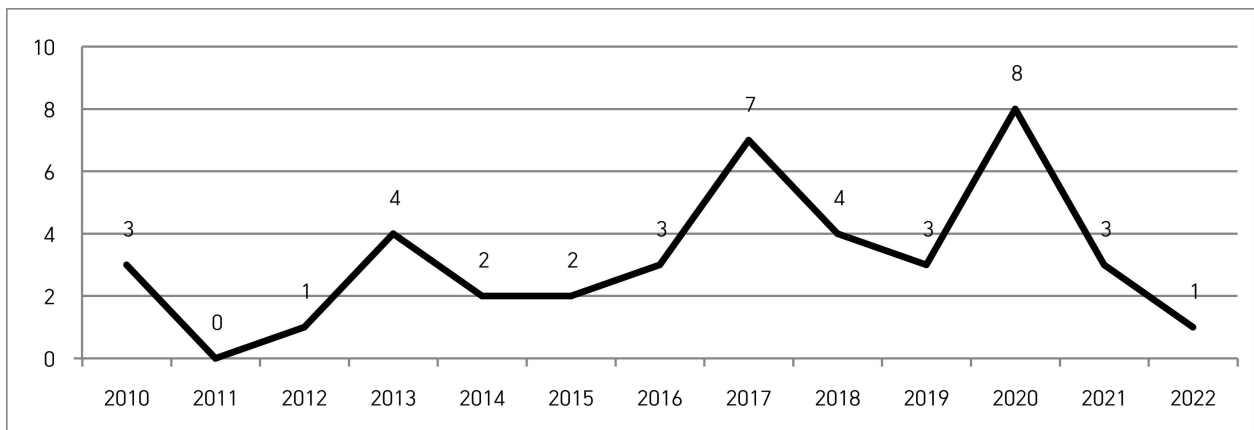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 장병 연구 2010~2022년까지 추이
Figure 1. Multicultural Soldiers Research Trends from 2010 to 2022

1. 연도별 현황

다문화 장병 정책 연구 관련 학술논문들의 연도별 발행현황으로 표 1에서와 같이 2010년부터 2022년 현재 까지 총 41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문화 장병에 대한 연구는 2010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2011년부터 현역입대가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누적되어왔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3.4건에 불과하여 현안의 시급함을 고려한다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심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2017년, 2020년과 같이 특정 년도에 집중되었다. 특히, 2020년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다음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에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지난 10년간 다문화 장병의 병영 생활 내 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연구분야별 현황

주제별 연구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다문화 장병에 대해서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역량’,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이상 두 가지의 주제가 전체 중 절반 가량(각24%, 총48%)을 차지하며,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20%), ‘현 실태 및 방안 제언’(17%), ‘해외사례 시사점 분석’(10%)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 장병 입대에 대비하는 준비방향 및 환경조성’(5%)이 가장 적게 연구되었다. 표 2는 다문화

장병 관련 연도별 연구 주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앞둔 2010년에는 ‘준비방향 제언, 병영환경 조성방안’등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대비’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군대를 대비한 군의 준비사항으로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한 2차적인 차별과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 제정, 동반입대복무제도 및 연고지복무제도 적용, 교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 함양, 그리고 장병의 특성과 다름을 고려한 보직 및 직책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2, 3].

입대가 시작된 직후에는 꾸준히 다양한 대상들이 다문화 장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연구되어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을 추적해왔다. 장교들은 다문화 장병들에 대해서 외국어 교육, 부족한 병력 보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화 차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 및 국가관이나 애국심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1].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일반인 집단은 다문화군대의 강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지만 다문화장병의 병영생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4].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가 다문화 역량 함양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교육 및 프로그램에는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 차별과 동조, 다양한 관점의 배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롤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인물을 활용하기도 하였다[5, 6].

비교적 최근인 2017년부터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역량’을 강조하면서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역량’이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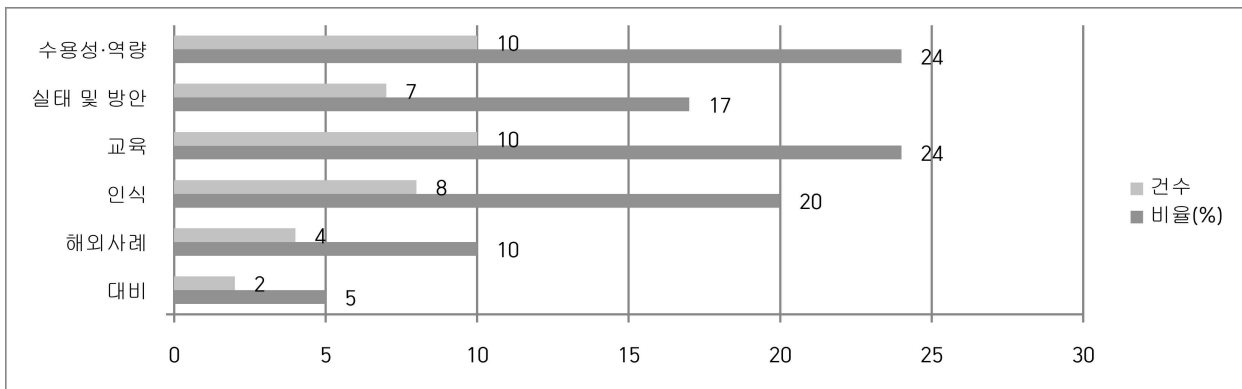


그림 2. 주제별 연구 현황 (건수, 비율%)
 Figure 2. Current status of research by subject (number of cases, ratio)

표 2. 다문화 장병 관련 연도별 연구 주제 현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annual research related to Multicultural Soldiers

연도/주제	대비	해외사례	인식	교육	실태 및 방안	수용성·역량	합계
2010	2	1					3
2011							
2012			1				1
2013			1	2	1		4
2014				1	1		2
2015			1	1			2
2016		1	1	1			3
2017			1	2		4	7
2018			2	1		1	4
2019					2	1	3
2020		1	1	2	1	3	8
2021		1			2		3
2022						1	1
건수	2	4	8	10	7	10	41
비율(%)	5%	10%	20%	24%	17%	24%	100

대해서 연구했다. 더하여, 군 장면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다[7].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언하는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분석기간 전체에 고루 분포되었으며 대부분 미군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미군이 경험했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특정 인종의 병사들만 규제하는 제도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고, 인종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전장 투입, 동일한 기준으로 공적 평가,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소 설립 및 프로그램 도입을 소개하고 있다[8]. 이스라엘 군에서 착안하여서는 다문화 자녀만을 모집단으로 편성하여 선발하는 모집 규정 신설, 부모의 본국 방문 시 특별휴가나 항공료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9].

3. 연구 대상별 현황

설문 연구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한 연구는 총 21건이었다. 이때, 연구 대상은 그림 3에서 보듯이 주로 군 관계자인 간부(41%), 용사(24%), 장교후보생(14%)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입대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자녀의 입대에 대한 다문화 가정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14%). 직접적인 관계성은 약하지만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인 집단(7%)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존재한다(7%).

다문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병사들의 고충은 서툰 한국어로 인한 의사소통이

지배적이었으며,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편견과 차별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0]. 입대의 대상이 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군복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었으나 언어 및 문화적 이중 장벽에서 비롯된 통제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서 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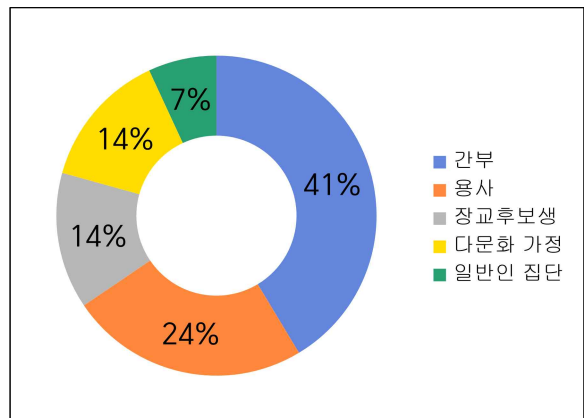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대상별 연구 비중
Figure 3. Percentage of studies by subject of study

표 3과 같이 비록 장병에 해당하는 군 간부 및 용사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문화 용사 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하나에 불과했다 [10]. 더불어, 다문화 용사와 복무 경험이 있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매우 드물었다[12, 13].

표 3. 연구 대상별 현황

Table 3. Status by subject of study

연구대상	연구건수	비율(%)	세부 연구대상
간부	12	41%	장교, 부사관
용사	7	24%	현역, 예비역
다문화 가정	4	14%	부모, 자녀, 청소년
장교후보생	4	14%	학군장교후보생, 사관생도
일반인 집단	2	7%	패널데이터
합계	29	100%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문화장병의 입영률은 증가하고 있다. 2022~2027년에는 다문화장병이 32,557명에 이를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망하는데 이는 연 평균 4,651명으로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1].

더구나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영장병 감소추세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용사뿐 아니라 장교, 부사관 등 다양한 신분에서도 점차 증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장병의 증가추세에 비하면 분석결과 의 연도별 현황에서 알수 있듯이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연간 3.4건, 총41건의 연구만이 진행되고 증가세가 여전한데도 오히려 2020년 이후 연구가 감소하고 있는점이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연구분야별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을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어, 입대가 시작된 직후에는 인식, 실태를 파악 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이동함을 알수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역량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이런 연구의 흐름을 볼 때 다문화장병의 증가추세에 대한 군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 이자 증가추세인 다문화장병관련 정책에 대한 현실적 처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을 알 수있다.

연구 대상별 분석결과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을 다 른점을 확인했으나 공통된점은 당사자 보다는 수용자 에 해당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군의 다문화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다문화 용사 당사자 혹은 다문화 장병과 근무

경험이 있는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 가 있다. 불필요한 갈등조성이 우려되어 군내부에서 당 사자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면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다문화 용사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예비역 용사들을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10여년이 경과된 다문화장병 과 관련된 병영생활의 실상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 색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장 병 입대에 대비하였듯 다문화 간부에 대한 연구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S. Lee, "Officers'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in the Military and Implications to Policy Direc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4, No. 2, pp.47-71, 2018
- [2] S.A.Choe, "Sugestions to the Civil Society and the Military for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Multicultural Army",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 3, No. 1, pp.93-113, 2010
- [3] A.S.Park, "A Study on the Preparations for Enlistment of Multicultural Youths",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26, No. 4, pp.93-113, 2010
- [4] K.L.Park,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Military of Adolescent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Vol. 15, No. 3, pp.47-71, 2018
- [5] K.J.Song, I.C.Kim, Y.J.Jang, and K.S.So,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multicultural value respect leadership training program : focused on the military cadets",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 13, No. 2, pp.37-64, 2020
- [6] G.T.Kim, "Research on Methods to Improve Military Education: In Perspective of Multiculture Society", *Journal of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JSMFE)*, No.51, pp.127-152, 2017
- [7] M.H.Y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apability Measurement Tools for Korean Soldiers", *Studies of Koreans Abroad (SKA)*, No. 57, pp.1-37, 2022
- [8] M.H.Jung, "The Study of the US Army's Racial Discrimin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Vol.11, No.3, pp. 277-303, 2010
- [9] B.K.Jin, H.S.Park,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Soldiers”, *KRCEM*, Vol. 14, No. 4, pp.133-150, 2018
- [10]S.H.Park, “A Study on the Servic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Soldiers: Focused on Ground The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209-214, February 2020.
- [11]B.S.Jung, W.H.Lee, “Analysis of Perception on Military Duty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KJMAS)*, Vol. 69, No. 3, pp.85-110, 2013.
- [12]M.H.Kim,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 officers' multicultural acceptability: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pp. 337-364, January 2019.
- [13]W.K.Youn,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Defense Human Resources -Focusing on the Status of Military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Navy and Marine Corps-”,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Vol.10, No.2, pp.211-237, 2021